

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조치

1 주요 지적사항 조치

구 분	지적사항	처리결과	
		완료	추진중
건수	9	9	0

※ 시정요구 1건, 처리요구 4건, 건의사항 4건

2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

지적사항(1) : 도의회 정책소통 강화

- 전북연구원의 도의회 정책소통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총 24회의 정책 소통을 실시했다고 되어있음
- 그러나 행자위 현지 의정활동 참여, 지방시대 종합계획 의견 청취 등 정책소통의 취지와 연관성이 적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
- 정책소통 목적에 부합하고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소통을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전북자치도 의회와 전북연구원 간의 정기적인 정책소통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

'의연(義研)정책협의회' 운영 예정

- 운영기간 : '24년 1월 ~ '24년 10월
- 운영회수 : 총 5회 (행자위 2회, 기타 상임위 각 1회 상반기)
- 분과구성 : 행정자치분과, 농산업경제분과, 문화건설안전분과, 환경복지분과 등 4개 분과
- 주 제 : 상임위별 공통 관심사항, 도정 핵심 및 현안사업 등
- 프로세스 : 의제 제안 → 주제설정 → 브레인스토밍 → 세미나 개최 → 도 정책 제안

지적사항(2) : 전라도 천년사 편찬 (배포중지 사유와 법적 근거)

- 전라도 천년역사 정립 필요성으로 천년사 발간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 3월 편찬회의를 통해 인쇄·출판 및 발간·배포 진행을 결정함
- 전북연구원에서 출판사에 발송요청과 전북광주전남 등에 천년사 발간·배포 알림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전남·광주가 배포에 반대하면서 3개 시·도는 당일 구두로 중지요청을 하였고 지난 4월 배포중지 공문을 전북연구원에 발송하였음
- 출판사 회수요청 결과 127건이 미회수 되었는데 배포 중지 한 이유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「전라도천년사 편찬」은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주체별 역할이 설정되어 있으며, 전북연구원은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
 - 3 개 시 도 : 「전라도천년사 편찬」 관련 각종 현안사항 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, 천년사 편찬사업 관련 업무지원, 주관기관(전북도) 예산교부 및 협약서 체결 등
 - 편찬위원회 : 천년사 편찬 추진방향 설정 등 총괄 책임, 각 분야별 집필진 구성 및 선정, 집필·교정·발간·배포
 - 전북연구원 : 사업 및 예산 집행·정산관리, 편찬위원회·집필진 등 사업관련 지원
- 업무협약과 사업계획서에 의거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는 배포 지시('23.4.3)를 하였으나 배포 알림에 대해 3개 시도가 발송중지를 요청('23.4.4~4.7)함에 따라 배포 중지
 - 업무협약서에 의거 전북자치도가 지도·감독 권한을 통해 전라남도과 광주시의 배포중지 요청을 편찬위원회에 알림

지적사항(3) : 전라도 천년사 편찬 (배포경위, 배포권한 근거, 관계자 참석 자료 제출)

- 전북연과 전북도가 맺은 계약서 제11조를 근거로 배포중지 요청을 했고, 회수 요청을 한 것이 맞는지 묻고, 최초에 광주에서 토론회시 재산권 및 판권 등을 편찬위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음
- 그러나 계약서에는 시도 공동 소유라고 되어있음. 배포된 경위, 배포 권한이 편찬위에 있다는 자료 제출, 배포 결정을 한 편찬위 회의에 3개 시도 관계자 참석 자료 제출할 것을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업무협약서 제11조 2항 “전북연구원은 사업완료 후 성과물을 시도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” 에 의거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가 인쇄 및 발간완료를 선언 하고 배포를 요청함에 따라 3개 시도에서 사전 논의한 배포처를 대상으로 배포
-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('23.1.12)에 3개 시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사 및 자료집 인쇄를 완료할 것을 결정하였으나, 배포를 결정한 편찬위원회 회의 ('23.3.6)에는 3개 시도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았음
- 업무협약서 제11조 1항 “본 사업추진 결과 도출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은 시도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” 에 의거 전라도천년사 모든 출판물에 저작권은 3개 시도에 있음을 기술하였음

지적사항(4) : 전라도 천년사 편찬 (분실·폐기 관련 정밀감사 주문)

- 학자 및 기관 등에 회수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 회수하지 못하고 분실·폐기된 것이 26권이나 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정밀감사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미회수 127박스 중 분실·폐기 및 미수령 등을 조사한 결과 회수불가가 최종적으로 33박스, 회수가능이 94박스로 확인 됨
- 회수 가능한 전라도천년사에 대해 1:1 통화를 통해 94박스 전량 회수
- 회수가 불가능한 33박스에 경우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,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를 공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저야함을 명시한 공문 개별 발송 완료

<회수 현황>

(‘24.1.24 기준) (단위: 박스)

구분	합계	유선 확인(박스)					
		회수 가능	소계	미수령	분실	폐기	반납중 분실
개인	73	57		3	5	4	5
기관	54	38		10	2	2	2
누계	127	94	33	13	7	6	7
회수	발간본 회수	94	94				
	사실확인서	33	33	13	7	6	7

지적사항(5) : 전라도 천년사 편찬 (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)

- 전라도 천년사 관련 추진경과를 보면 최종편집본 인쇄, 공람,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미 최종 인쇄를 마친 상태에서 공람,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묻고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자료로 제출할 것을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는 2차례의 감수와 2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‘21.12.16일 최종원고를 확정하고 출판사에 편집 디자인을 의뢰하여 ‘22.12월 납품을 받기로 결정
- 인쇄가 진행 중인 ‘22.12.14일 최초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인쇄가 일시 중지 되었지만, 편찬위원회의 인쇄재개(‘23.1.12.)에 따라 ‘23.2.17일 인쇄가 완료된 상황

- 인쇄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별책과 별지를 제작하게 되었음
 - 전라도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견해를 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별책에 공람 내용을 기술하고, 별지를 통해 시민단체의 역사적 견해를 정리하여 제작
- 전라도 천년사 사업비의 집행내역서에 대한 사전 컨설팅 완료('23.12.8~12.22)
 - 검토사항 : 연구원 회계규정 및 도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지출여부 확인, 회계서류 지출관련 컨설팅 등
 - 컨설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(회의비 과오납 환수 등)

지적사항(6) : 국가예산 및 국가정책 관련 과제의 수행비율 제고

-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이력제를 실시하고 있고, 295개의 대상과제 중 201개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비율은 약 68%임
-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가 도 수탁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수치임
- 또한 도 수탁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예산 및 국가정책 관련 과제의 수행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근무실적 평가시 정책반영 항목 신설 * 직원평가규칙 개정('23.11.10)
 - 연구과제 종료 후 결과물에 대해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도 및 국가 정책, 계획, 예산 등에 반영될 경우 활동실적에 대한 점수 부여(과제당 연간 0.25p~4p)
- 연구과제 평가시 성과확산 지표 추가 * 직원평가규칙 개정('23.11.10)
 - 착수연구심의회 및 최종연구심의회시 연구성과 활용계획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 부여 (착수연구심의회 10점, 최종연구심의회 15점)
- 연구과제 착수단계 심의 강화 * 직원평가규칙 개정('23.11.10)
 - 연구과제 착수단계부터 정책반영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수연구심의회 평가점수 반영(최종연구심의회 100% → 착수연구심의회 30%, 최종연구심의회 70%)

지적사항(7) : 연구 객관성 확보

-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의 연구기조와 그 방향성이 전북자치도의 의도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, 잼버리 경제 유발효과,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, 이차전지 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등 관련 연구용역 등을 들며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의 결과물이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연구(장단점 기술) 수행을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전북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의 결과물이 너무 과장되지 않고,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 - 착수연구심의회 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, 최종연구심의회시 연구성으로 도출한 결과물에 대해 연구심의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운영하겠음
 - 특히, 연구내용의 심각한 오류, 연구원의 위신 저하 등의 문제 발생시 연말 평가 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패널티 부여 예정

지적사항(8) : 발굴 특례 반영률 제고

- 현재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'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'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의회관련 특례 1건 등 총 178건의 특례를 발굴했으나 실제 법률안에 반영된 것은 99건, 비율로는 55%로 다소 낮은 수치라고 판단됨
- 발굴된 특례 하나하나가 지역 염원의 산물이므로 발굴 특례의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전북연구원은 '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' 운영을 통해 도와 함께 655건의 특례를 발굴하고, 유사특례 통합, 불요불급한 특례들을 정비한 후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,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개별 특례 필요성 및 추진논리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추진해 왔음
-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1차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공동 대응한 결과 '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'이 국회 행안위 및 법사위를 거쳐 최종 '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음
- 향후에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례 발굴을 위해 제주, 강원, 세종 등의 경험을 적극 벤치마킹하고, 특별자치도 출범 및 운영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자문 확대를 통해 발굴 특례가 2차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

지적사항(9) : 총선공약 발굴 실적 및 자료 제출

- 총선과 대선공약 등 발굴 내역만 제출하고 해당 공약들이 실제 후보 공약으로 얼마나 연계되었는지 등에 대해 제출하지 않았는데 총선공약 발굴 실적과 관련하여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

□ 조치내용(완료)

- '22대 총선공약 발굴'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6개 분과를 운영했으며, 1,2차 중간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136건(69조 6,816억원)* 선정
 - * 신산업 22건(17,798억), 경제 9건(306,595억), 농생명 14건(12,534억), 문화체육관광 17건(16,458억), 새만금 균형발전 13건(7,781억), 지역개발 SOC 35건(298,696억), 안전 6건(2,380억), 환경녹지 10건(10,095억), 복지 5건(21,350억), 교육 소통 5건(3,129억)
- '22대 총선공약 발굴' 내용을 각 정당에 주요 공약으로 제출('24.1.16)하고, 최종적으로 반영된 공약이 확인되면 자료 제출 예정